

운송 Analyst 배기연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RA 오정하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2022. 2. 17 (목)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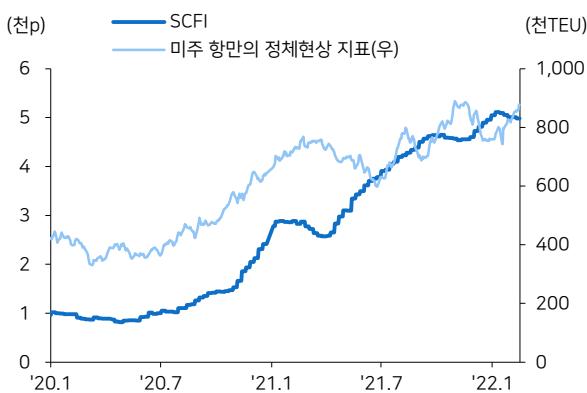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896.0p(-72.0p DoD)



컨테이너운임(SCF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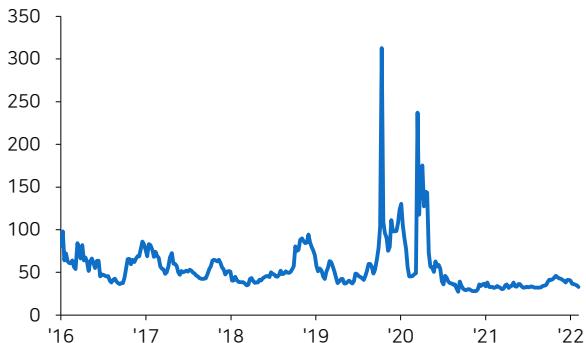
4980.9(-29.1p)



VLCC Spot Rate

32.5(-0.4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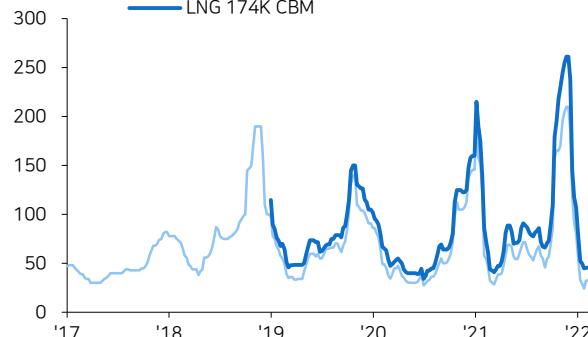
(WS) VLCC Earnings



LNG Spot 운임

32.5p(+0p WoW)
45.5p(+0p WoW)

(천달러/일) LNG 160K CBM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56.4p(+1.3p WoW)
200.0p(+0.0p WoW)

(p) 신조선가



항공화물 처리량

312.8p(+4.6p DoD)
108.0p(+2.7p DoD)

(p) MSCI 항공화물 index



주: 컨테이너 운임(SCFI)는 춘절이후 2주만에 업데이트됨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일본,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 7일→ 3일 줄일 듯

일본정부가 외국인 신규입국을 오는 3월부터 허용할 예정인 가운데 격리기간도 7일에서 3일로 줄일 것으로 보도됨. 3일 격리대상자는 백신을 3차까지 접종했거나 일본정부가 지정한 코로나 위험 국가가 아닌 곳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임. 2월 현재기준 한국은 고위험 국가로 분류되지만, 3차까지 접종 시 3일 격리됨. 해외입국자 수도 현재 3,5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 입국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임. (한겨례)

고유가에 국제선 유류할증료 급등…첫 10단계 적용-최대 13만8천200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 등으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도 급등했다고 보도됨. 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번 2월달보다 4계단 상승한 10단계가 적용돼 편도 기준 거리 비례별로 18,000원~138,200원이 부과될 예정임. 2016년 7월 유류할증료에 거리 비례구간제가 적용된 이후 10단계가 적용되는 것은 처음임. (연합뉴스)

Supramaxes take the limelight as demand holds firm

Supramax 벌크선 운임이 전주대비 33% 이상 상승하며 주목받았다고 보도됨. Supramax 10TC도 전주대비 35% 상승했다고 보도됨. Supramax 운임상승은 석탄 수요와 인도네시아산 석탄 수출재개에 기인한다고 보도됨. Clarksons에 따르면 철광석 및 석탄 수요가 감소하고, 곡물 및 기타 벌크가 건화물선 시황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Tradewinds)

North Asia's thirst for gas continues to surge, along with prices

동아시아의 천연가스수요는 코로나19 회복세와 함께 상승했다고 보도됨. 2021년 동아시아 천연가스수요는 2.2억톤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함. 그 중 중국 수입량이 18.5% 증가해 7,990만톤을 수입함. 수입량 증가로 LNG 수입 가격도 2021년말까지 함께 상승했다고 보도됨. (Upstream)

100 million barrels: UAE's Dragon makes huge oil discovery in Gulf of Suez

두바이 Dragon Oil이 수에즈만에서 대규모 유전을 발견했다고 보도됨. 약 1억배럴으로 수에즈만에서 발견된 유전 중 20년래 최대 규모 유전으로 보도됨. 세부 개발 계획은 발표되지 않음. (Upstream)

ExxonMobil selects H-Line for LNG carrier newbuilding quartet

삼성중공업이 H-Line해운으로부터 LNG선 4척을 수주할 것으로 보도됨. 2025년 인도예정임. 삼성중공업에 예약되어 있는 옵션분 4척도 발주할 것으로 알려짐. (Tradewinds)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